

# ‘사분오열’ 5월 관련단체 하나로 묶어낼 수 없나

## 5·18공법단체 설립 놓고 잇단 주도권 다툼...입법 추진 무산

### 시민들 “그들만의 것이 아닌 지역사회 자랑으로 만들어가야”

5·18 유족회와 5·18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를 하나의 공법단체로 통합해 5월 정신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자는 5·18 공법단체 설립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5월 관련단체들이 5·18 공법단체 설립 추진과정에서 주도권 다툼 등을 지속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5월 관련단체의 하나된 모습을 바라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작은 일에도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파열음만 내고 있다.

이제는 5월 관련단체가 갈등·반목에서 벗어나 ‘5월의 사유화’, ‘5월의 권력화’라

는 비판을 견뎌야 수용하고 지역사회의 자랑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고언을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5월 관련단체에 따르면 3개 단체는 지난 2008년 ‘5·18 정신계승의 실질적인 주체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공법단체 추진을 선언했으나 대의원 수와 정관 제정시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법단체 추진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후 5·18 구속부상자회는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탈퇴를 선언한 뒤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부위 소위에서 부결되면서 공법단체

추진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5월 관련단체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한 득권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사분오열됐다. 시민들이 5·18을 그들만의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 단체에 등을 돌린 이유다.

5월 관련단체의 불협화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추억의 7080 총장축제’와 관련,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주 무대를 설치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나오면서 행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 무대 설치장소가 5·18 최후 격전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임을 감안하면 동구의 단일한 행정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5월 관련단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와 5·18 기념재단 이사장 선출,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 무대설치 등 그간 이들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술한 갈등을 빚어온 탓이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공법단체 필요성에 대한선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막상 추진하려고 하면 자기 주장만 편다. 문제가 불거지면 서로 ‘네 탓’이라고 우기면서 책임공방만 한다”며 “5·18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도 눈치만 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7 해질 17:59  
 달출몰 22:38 달지름 12:03

**오늘 첫 서리 올수도-**  
 대체로 맑고 아침 일부 산간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1/21	보성	맑음	8/20
목포	맑음	11/19	순천	맑음	12/21
여수	맑음	14/19	영광	맑음	9/20
나주	맑음	10/22	진도	맑음	11/20
완도	맑음	12/20	전주	맑음	10/20
구례	맑음	8/21	군산	맑음	9/19
강진	맑음	10/21	남원	맑음	8/20
해남	맑음	10/21	축산도	맑음	14/17
장성	맑음	9/21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서	0.5~1.0	북서	0.5
	남부	남서	1.5~2.5	북서	1.0~2.0
남해	남부	북서	1.0~2.0	북서	0.5~1.0
	남부	북서	2.0~4.0	북서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47	05:41
여수	23:34	18:27
	06:08	00:01
장성	18:48	12:49

◇주간 날씨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	☁	☀	☀	☀	☁	☁
9/21	11/22	10/22	9/23	9/24	11/23	14/21

◇생활지수

식중독	52
운동	60
빨래	70

# 뮤지컬 갈라쇼 등 세계적 ‘길거리 축제’ 위상 높아져

## 11회 총장축제 뭉 났나

국내 최고 도심축제인 ‘제11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지난 12일 폐막식을 끝으로 다섯 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총장축제는 뮤지컬 방식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모든 연령대가 고루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세계인과 함께 하는 거리퍼레이드 등을 통해 ‘비상(飛上)하는 광주의 미래’를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는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체류형 문화관광축제로 발전·계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동구는 올해 처음으로 개막식 무대를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한 ‘뮤지컬 갈라쇼’로 진행, 국내 최고 도심축제도 면모를 과시하며 총장축제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총장축제의 꽃인 ‘거리 퍼레이드’는 예전과 달리 국내외의 110개 공연팀·1만 명이 참가, 수준 높은 자국의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는 등 총장축제가 세계 최고의 도심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람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축제기간 동안 9개의 무대에서 총장축제 주제곡인 ‘너랑 나랑’에 맞춰 남녀노소 불문하고 방문객들이 ‘플레이싱’을 연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추억의 테마거리’·‘광주이야기 바닷길

5·18사적지 무대 설치 싸고  
 5월 관련단체와 마찰 빚기도  
 내년 亞문화전당 개관 앞두고  
 체류형 관광축제로 발판 마련

’ 등은 광주 문화예술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아낸 기획 행사로, 동구가 향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는 광주극장 주변 골목길에 재개발로 사라진 백화마을과 학동 8거리의 병풍다리 등을 설치, 구의 현안문제인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재개발문제를 다루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구는 5·18 사적지에 주 무대를 설치했다가 5월 관련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무대가 재설치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히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에 따른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으며 일부 방문객들의 주취 소란과 불법투기는 성공적인 총장축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총장축제기간 동안 일대 상가가 경제특수를 누렸는데, ‘반짝 특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총장축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행기자galee@kwangju.co.kr



‘추억의 7080 총장축제’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국내 최고의 공중 퍼포먼스 단체인 ‘프로젝트 날다’ 공연팀이 세익스피어의 원작 ‘한여름밤의 꿈’을 각색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지역 사립대생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급증

## 4년간 법적조치 128건 달해

광주지역 주요 사립대 학생 중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법적 조치를 당한 사례가 최근 4년간 12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당한 법적 조치는 총 7337건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준(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학자금대출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조선대·호남대·광주대 등 3곳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들이 가장 많았다.

조선대는 49건(가압류 18건·소송 31

건), 호남대는 43건(가압류 14건·소송 27건·강제집행 2건)이 법적 조치됐다.

또 광주대도 36건(가압류 11건·소송 24건·강제집행 1건)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장기연체자로 낙인찍혔다.

유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진행한 가압류와 소송·강제집행 등은 총 7337건이며, 이 건수는 지난 2012년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데 이어 2013년에는 2.1배 증가했다. 채무 시효 연장 소송도 2011년에 362건, 2012년 1056건, 2013년 321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구형 27일로 연기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7일로 늦춰졌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24회 공판에서 애초 21일 진행하려던 결심 공판을 27일 열겠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피고인 신문 등이

길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피해 가족들의 마지막 법정 증언도 20일에서 21일로 늦춰졌다.

선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승무원들의 구속기간(6개월)이 11월 14일 만료되고 재판이 통상 월~수요일 진행될 점을 고려하면 11월 10~12일 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등록 11주년 기념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녹차수도보성**

**제17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The 17th Seopyeonje Boseong Sori Festival  
 2014. 10. 24(금) ~ 10. 26(일)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다향체육관 특설무대

“제17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기념 KBS 특집 축하공연”

출연: 조상현·성창순·조통달·박애리  
 이성현·아이리아·선미숙  
 명창부 수상자

주최 | 보성군 주관 | 보성문화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단  
 전라남도 KoTPA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http://SORI.BOSEONG.go.kr/SORIFESTIVAL